

대구주보

연중 제21주일
2012.8.26.(나해) | 제1797호



I 금주의 성화

사도 성 요한

엘 그레코, 즉 그리스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도메니코스 테오토코풀로스의 성화는 매우 독특하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인체의 비례를 왜곡하여 외관의 사실성보다 내면의 풍정을 표현하는 그의 수법은 이 사도 요한의 초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요한 사도를 그린 그림에는 독수리 또는 성작이 함께 그려지는데, 이 그림에서는 요한 사도께서 오른손에 성작을 들고 계시며 왼손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다.

엘 그레코,
캔버스에 유화, 1605년.
스페인 프라도 박물관 소장.

† 오늘의 전례

저희가 누구에게 가졌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0-69 참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믿거나 우리 형편에 맞는 것만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요?

제1독서 여호 24,1-27,15-17,18ㄴ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 요한 6,60-69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화는 맛보고 깨달아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8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미사 중에는 휴대폰을 끄시다

최고의 선택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진우 아빨리나리스 신부 | 인평성당 주임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 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 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답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죽어 가는 할머니를 태워 그분의 목숨을 우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보답하는 것은 나중에도 가능한데 비해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이상형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상형을 차에 태우고 가겠다는 솔직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물론 시험 답안지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말 멋진 선택을 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 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소한 것부터 죽느냐, 사느냐에 이르는 목직한 선택까지, 그야말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하느님 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이냐, 하느님 나라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인들의 선택은 항상 하느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은 지난 몇 주간 이어온 생명의 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던 베드로 사도였기에 이런 확신에 찬 대답과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다 “주님 저희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4**

복음의 눈으로 문화 읽기

보편화되어 있는 대리산업, 이런 점도 생각하면서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이동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 구암성당 보좌

변화가의 밤거리를 걷다보면 자신의 차 앞에서 차의 열쇠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약주를 한 잔하고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월 쯤 되면 지역에서 소문난 어린이집 앞에 이제 막 걸어나는 아이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신 아이를 돌보아 줄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대리’라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 대신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어린이집, 가사를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 물건을 대신 전달해주거나 구입해주는 택배나 심부름센터 등이 대리문화를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대리문화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만든 수정란을 또 다른 여성의 자궁에서 자라게 하여 분만하는 대리모 제도, 남성의 성적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돈으로 구입하여 부인의 난자와 수정시키는 대리부 제도,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인공자궁을 통한 출산 등.

대리문화에 속하는 현상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있거나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대리문화를 바라보면 혹시 ‘봉사’라는 행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와 ‘봉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봉사’는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이 만나는 ‘사랑’에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대리’는 서로의 손익을 따져서 ‘재물’을 주고받는 관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리’는 자칫 ‘재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중심이 되어 ‘서로의 인격적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의 대상이 일이나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인간이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이나 수정란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을 가진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재물이 끼어들었다고 하여 서로의 인격적 만남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리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참 삶의 선택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주일 말씀

_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은 방랑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에 이방인의 신이 아닌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합니다.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떠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혹감을 느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복음은 제자직의 참된 가치를 알려줍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인 안전이나 안락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과 정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나도 실천하고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제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믿음의 동반자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동반자로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교리

_ 신앙의 은총

신앙은 시작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즉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은총을 주시지만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일겠다는 결정은 확고한 결심 후에 일생에 단 한 번하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느님으로 돌아서는 일련의 회심의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신앙을 선택한다고 해서 의심이나 두려움, 혼란이 일시에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을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망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은 소유욕, 특별히 돈에 대한 소유욕에 의해 쉽게 꺾이고 맵니다. 이러한 '거짓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갈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예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는 참된 행복과 삶의 충만함을 가져다줍니다. **27**

묵상해 봅시다.

- 나는 왜 하느님을 선택하였으며,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어렵고 힘든 어둠의 시기를 보낼 때 신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나눔과 섬김의 현장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편

추운 세파를 이기는 나눔의 행복

사회복지사 한효민 아가다

올해 초, 기습 한파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주거복지센터에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조심스레 방문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사시는 신대한(가명)씨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취소될 형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서구종합복지관을 찾아오신 신대한 씨는 어려운 부탁을 하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여동생 둘을 키우며 어렵게 자라신 신대한 씨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시지만, 일터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가끔씩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지친 부인이 떠나버린 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지만, 선정이 되어도 보증금이 없으면 입주가 불가능한 데다 지금 머물고 계시는 단칸방도 월세나 공과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꿀 수 없으니,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200만 원이 넘는 입주 보증금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사업에 사례를 신청하여 다행히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



서구종합복지관에서 김장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단칸방 집주인 분도, 신대한 씨의 사정을 들으시고는 연체된 월세를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신대한 씨가 새 집에 입주하게 되자, 희망대구주거복지센터에서 이사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대한 씨와 장래 생활계획에 대해 상담도 하고 또 인근 복지시설 안내도 해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와 드릴 수 있었던 데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시는 신대한 씨의 모습에 절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효민**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링크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8월 31일 금요일은 (故)최영수 요한 대주교님 3주기입니다.

■ 2012년 새 사제학교 졸업미사



지난 7월 10일(화)부터 시작된 2012년 새 사제학교의 졸업미사가 8월 15일(수) 성모승천대축일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사진 제공 : 계산주교좌성당

■ 새 사제단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2012년 새 사제학교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가 8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새 사제 12명과 한영수(F.하비에르) 담당신부님이 동행한 가운데 교구 성모당담당 서준홍(마티아) 신부님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성지순례 일행은 나가사키 주요 성지를 순례하고 나가사키 대교구장 타카미 미츠아키 대주교님을 예방하였다.

■ 서재성당 교우 12명 전국성지순례 완주



서재성당 박국현(요셉) 형제님 부부와 요셉 형제님의 다섯 대자 부부들로 구성된 12명의 성지순례단이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핸드북에 소개된 국내 111개의 성지를 모두 순례하였다. 성지순례를 마친 12명의 교우들은 주교회의 성지순례사목소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축복장을 받을 예정이다.

제1796호 주보(2012년 8월 19일)에 실린 4대리구 한마음 축제 기사에서 학생과 청년 '70여 명' 참가하였다는 기사를 '700여 명'으로 바로잡습니다.

환경보호에 적극 관심을

박성규 엘리지오



피정

희망기도 반나절 피정

기간: 9.2(일) 13:00~17:30(미사 포함)
 장소: 달비골 교육원 (삼성교회 옆)
 지도신부: 최봉도 (책 지참 <대, 소>)
 참가비: 1만 원, 선착순: 80명
 문의 및 신청: (010)3532-2879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9.8(토) 10:00, 다사성당
 주제: 무명 순교자들의 모후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10.13(토), 11.10(토)

젊은이 거룩한 독서모임 Lectio Divina

일시: 하반기 첫모임 9.11(화)
 매주 화 19:0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내 싸리울
 주최: 톱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문의: 313-3431 / (010)8519-3431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과정: 취미 교양, 취업 자격, 음악
 취미 자격, 음악 개인 레슨,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아동, 음악)
 모집: 8.13(월)~31(금) 감삼동·반야울
 문의: 660-5554~7, 개강: 9.3(월)

빛떼제 음악제 초대

일시: 9.1(토) 18:00~21:00
 대상: 가족 누구나, 저녁 뷔페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문의: (010)9056-9005

성가대를 위한 지휘 아카데미기 모집

일시: 9.4(화) 19:00 (1학기 / 12주)
 대상: 성가대 지휘자 및 단원, 일반
 강사: 황해량 (대구시향 전임지휘자)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대구가톨릭대 수시 신입생 모집

교과부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

2014년 개교 100주년의 전통
 입학 후 취업까지 책임
 수시 2,009명 모집 (63개 학과)
 접수: 9.5(수)~11(화), 850-2580

가톨릭어버이성경학교 개학 및 심화반 추가 모집(과정: 잠언, 지혜서)

개학: 9.3(월)부터 각 학년 요일
 심화반 추가모집(4학년 과정이수자)
 시간: (월) 10:00~12:10 / 19:30~21:30
 문의: (010)2889-3114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개강: 9.11(화)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 보육 학위 및 자격증취득
 문의: 1577-0361, www.cec.or.kr

제16기 외식CEO연구과정 모집

개강: 9.4(화) 10:30 (감삼캠퍼스)
 1년 2학기(매주 화) 10:00~17:00, 중식제공
 대상: 외식식품 경영, 관리,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보건의료과학대학원
 문의: 850-3179, www.oesikceo.com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미사	8월 27일(월) 오전 11시	도량성당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7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27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7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오순절평화이마을후원회 미사	8월 27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8월 28일(화)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
바뇌성모기도회 월례미사	8월 30일(목) 오후 2시	삼덕성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9월 1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송 월 타 올
 * 인 쇄 무 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 제사음식 해드립니다 -
 대명2동 1995-1번지 교대 앞 영선시장 내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칠곡 LC 사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 김동익(요한)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오십견/어깨통증 · 두통/어지럼증
 · 무릎 관절통 · 스포츠손상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성동(리노)
 www.linoclinic.com ☎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원방한의원
 통합진료 / 맞춤보약
 각종 암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의학박사(전문)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플스파랜드 3층

**전문
 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수리, 언어, 과학)
 과동부 · 교34능 · 재수생 · 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애(안젤라)
 신리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 256-6300

신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진성건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 017-242-7927, 053-952-7927

관덕정

순교자현양후원회원의 날 미사

일시: 9.1(토)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행사 | 모임

대구평화방송 개국16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9.14(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인씨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수 최성수, 소프라노 김은주,

베이스 이의춘, 생활성가가수 나정신

문의: 251-2610, 2621(예매: 티켓링크)

미용인의 모임 빛

일시: 8.27(월) 20:30

장소: 요안나 미용학원

교육 | 모집

제4기 로고스 스피치 학교

기간: 9.1(토)~10.13(토) 6주

장소: 교구청 별관, 회비: 10만 원

접수: 대구 508-10-448845-1, 남화정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카페: <http://cafe.daum.net/biap>

9월 첫째 주 가나강좌 안내

일시: 9.2(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2012년 2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교회사, 윤리신학1, 성사론, 철학, 기초신학), 전례(전례와 삶, 동양 사상) 신약 / 구약성경과정, 신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이곡성서대학 신구약성서듣기반

개강: 9.6(목) 10:30, 20:00

내용: 일반성서듣기 오전반, 저녁반

범위: 예언서, 지혜문학

강의지도: 이재수 신부

문의: 이곡성당, 584-7744

태전 어버이성경학교 개학신입생모집

개학: 9.6(목) 14:00

시간: 매주 목요일 14:00~16:30

장소: 태전본당 교육관

대상: 기존의 학생, 신입생

문의: 김 알마 수녀, (010)2770-4627

가톨릭근로사회관 영여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9.4(화) 19:00~20:30, 월3만원

과정: 창세기, 마태오(화, 목 저녁 강의)

문의: 253-1313 / (010)2578-5535

대구파티마병원 14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신규교육안내

기간: 9.10(월)~11(화), 3층 제1강의실

선착순: 30명, 교육비: 2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 장혜자

문의: 940-7059, 7415(입금 후 전화)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

지원자 모집 (예비모임: 11.26(월))

자격: 55세 이하. 성모님을 따라

봉헌의 삶을 살고 싶은 모든신자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성모당

문의: (051)634-4820 / (010)6711-4819

군위묘원 버스운행 안내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1회 교구버스 정기운행을 실시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운행기간: 5.7(월)부터 ~ 6개월 간 한시 운행

운행일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9:00

출발장소: 교구청 대건출판사 앞 주차장, 운임료: 왕복 1인당 1만 원

매표기간: 운행일 전(前) 주 월~금요일, 44명 선착순

문의: 관리과 250-3003 (전화예매 불가)

•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 운행을 취소할 수 있음 (예약금 반환)

2484 익스프레스

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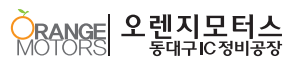
수성구 761-2484

한역기(바오로) 011-514-3855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유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오로) 958-0009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명의 의료진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신경동 대우이퍼드 알 / 대형전용주차장 원비 / 여성전용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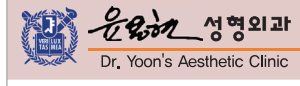
www.hangmuns.com 959-7175
위·대장·항문 클리닉·건강검진·내시경·알집진

대구 안과

마이크로 라식·에피 라식·알타신 렌즈
백내장 수술·녹내장·사시교정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딩), 조영수(다미아노)
☎ (053)651-2233

서부정류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 300m 좌측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